

# Japan Weekly Digest

2012. 10. 27 ~ 2012. 11. 02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한·일간 통화마찰 : 원·엔환율의 변동요인과 영향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일본 굴지의 가전메이커들 줄줄이 적자
- 일본정부, 아프리카 자원확보 본격화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**한국한일경제협회**  
**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**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 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 
(Tel.02-3014-9888)

## ① 주간경제초점 : 한·일간 통화마찰 : 원·엔환율의 변동요인과 영향

-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연재하고 있는 「원의 연구」 시리즈에서 한·일간 통화 마찰을 다룸. 이를 중심으로 원·엔환율의 변동요인과 한·일간 무역·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봄

### □ 엔·원 환율변동의 정책적 요인

- 최근 엔화환율은 달러당 80엔대로 엔고행진이 멈추고 있는 반면, 원화환율은 달러당 1,100원 돌파, 원고 경향을 보이고 있음.
  - 경제단체나 대한상공의소 한국 업계에서는 달러당 1,100원이 수출채산성의 마지노선이라고 함.
- 엔고세가 꺾이고 원고가 진행되는 엔저·원고 국면에서는 일본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반전공세를 펼 수 있는 기회이나 실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
  - 그 이유는 소규모의 개입이라면, 한국의 통화당국이 개입의 유무를 일체 공표하지 않고, 필요하면 언제든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.
  - 그러나 엔화의 경우에는 일본이 미국·유럽으로부터 개입용인에 대한 양해를 얻어 개입하고 있음. 즉 한국과 같이 자유자재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
- 원화와 엔화의 이 같은 차이는, 원화가 국제결제통화가 아니라는 데서 비롯됨. 원화의 거래량은 전체의 1%미만임. 인위적인 환율변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세계경제에 미칠 가능성은 그만큼 적음.
- 국제결제은행(BIS)에 의하면, 1970=100으로 한 명목실효환율은 엔이 450정도로 높아진 반면, 원은 15정도로 크게 낮아짐.

### □ 원저·엔고가 일본의 공동화에 일조

- 엔고·원저라는 큰 흐름이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을 가속화시켜 공동화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임. 지식경제부에 의하면 2012년 1~9월 기간 중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약 33억 400만달러(신고 기준)
  - 이는 2011년의 23억 달러를 훨씬 상회한 과거 최고 수준임. 업종도 최첨단소재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함.
- 인건비나 전기료 등 한국의 생산코스트를 달러베이스로 비교하면, 한국이 초엔고가 정착한 일본보다 저렴. 지금의 환율수준이 계속되는 한, 일본기업의 공동화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는 일본 측의 지적임.

## □ 원·엔 환율과 한·일간 수출경합

- 경제산업성은 2012년판 통상백서에서 원화 환율과 일본주가의 관계를 분석. 엔고·원저에 연동되어 일본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현저하다고 지적
- 그 배경에는 한·일간 무역 면에서의 경합이 치열하기 때문임. 수출품목의 80%를 자동차나 전기기기 등 기계류와 철강이 점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라이벌 관계에 있음.
- 특히, 전기기기 분야에서는 경합도가 매우 높음. 한국기업들이 기술혁신에 따라 이미 제품의 성능 면에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. 그만큼 가격이 수출량을 좌우하고 환율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음.
- 물론, 원저가 한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음. 원저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한국기업들에게는 채산성 악화요인이 되기 때문임.

## □ 한·일간 경쟁력 격차 확대

- 한·일간 경쟁력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산업임. 금년 2월 파산한 DRAM 세계 3위인 엘피다메모리의 CEO에 의하면, 작년 10월,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달러에 대한 엔·원의 환율차이로 삼성전자와의 비용경쟁력 격차가 70%나 벌어졌다는 것.
- 도시바는 액정TV분야에서도 고전. 코스트를 절감하더라도 환율차이 등으로 인해 한국제품과의 가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.
- 한국기업의 약진과 관련하여 대담한 투자결단이나 품질향상, 마케팅 능력 등이 큰 요인인 것은 확실하나, 그 이면에 환율의 덕을 보고 있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임.

## □ 독일은 한국, 일본 모두에게 롤 모델

- 그러나 환율변동 여하에 따라서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은 한·일 모두에게 공통적임.
- 통상백서는 이와 대조적인 예로서, 브랜드가치의 향상이나 이노베이션을 중시하는 자세로 환율변동에 관계없이 높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기업들을 들면서, 제품의 질로 승부하는 전략을 배우도록 일본기업에 촉구하고 있음.

## 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### □ 일본 굴지의 가전메이커들 줄줄이 적자

- 일본 굴지의 가전메이커들이 줄줄이 금년도 적자를 낼 전망이다.
- 파나소닉은 금년 회계연도(2013.4~2013.3) 적자 전망치가 7,650억엔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. 휴대전화와 전지 등의 사업축소에 따른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임.
  - 7,721억엔의 적자를 냈던 전기에 이은 대폭적인 적자로 연간 배당도 1950년 5월 이래 63년 만에 제로
  - 그 배경으로 M&A전략의 실패를 들 수 있음. 전지사업을 지렛대로 한 성장전략을 구상, 8,000억엔을 투입하여 산요전기를 매수했으나 사업 환경이 크게 바뀔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기 포함 5,000억엔의 감손 손실을 계상
  - 휴대전화사업에서는 스마트폰사업에 뒤늦게 뛰어드는 바람에, 과거 높은 시장점유율을 자랑했던 국내시장에서도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등에 크게 뒤지고 있음.
  - 금년에 다시 참여한 유럽시장에서도 판매가 신통치 않음. PC나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리튬전지사업은 가격과 수요 양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
  - 수익개선을 위해 내년 4월에 백색가전과 자동차·산업용기기 등 4개 컴퍼니로 조직을 재편할 예정. 채산중시의 자세를 가일층 강화하여 사업 분야를 집약, 2015년도에는 전 사업부문에서 영업이익율을 5%이상으로 높일 계획임
  - 영업실적이 부진한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사업은 유럽 사업을 금년도 중으로 손을 뗄 방침임. 고전중인 리튬전지나 태양전지 분야에서도 거점을 재편할 계획임.
- 샤프는 1일 금년도 회계연도 연결최종손익이 4,500엔의 적자(전기는 3,760억엔 적자)를 낼 전망이다라고 발표. 당초는 2,500억의 적자를 예상했으나, 액정패널 등의 재고평가손 등으로 인하여 2기 연속 과거 최대 규모의 적자를 갱신.
  - 매출액은 거의 2011년 수준인 2조 4,600억엔. 본업의 수익을 나타내는 영업손익은 1,550억엔의 적자로 당초 예상한 1,000억엔을 크게 상회. 박형TV, 액정패널, 태양전지 등의 판매 부진이 원인
  - 다만 금년도 하반기에는(2012.10~2013.3)에 관한 한, 인원삭감 등 고정비 절감의 효과로 138억엔의 영업흑자를 냄.
- 한편, 소니도 1일 발표한 중간연결결산 결과 최종손익이 401억엔의 적자. 그러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1.2% 증가한 365억엔을 기록, 수익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

-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샤프와 파나소닉의 신용등급을 낮추기로 발표
  -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샤프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BBB-에서 6단계 낮춰 투기적 등급인 B-로 발표. 샤프의 자금사정 등에 대한 우려가 이유임.
  - 피치는 샤프가 내년 여름 이후도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는 한편, 경쟁격화와 엔고로 인해 주요사업의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있음.
  - 국제신용평가사 S&P는 파나소닉의 신용등급을 A-에서 BBB로 2단계 낮추기로 발표. 주력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어려운데다 앞으로 1~2년 동안은 수익 및 재정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.

## □ 일본정부, 아프리카 자원 확보 본격화

- 일본 경제산업대신 주최, 남아공화국 광업상이 공동의장을 맡게 될 각료회의가 내년 5월 개최예정. 모잠비크, 잠비아, 마다카스칼 등 10개국 정도가 참가할 예정이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포럼도 동시개최.
- 논의될 자원탐사 안건은 남아공화국의 희토류나 잠비아의 동광산, 기니아의 보크사이트 등 모두 개발이 유망한 광상으로 투자나 생산가능성을 조사
  - 아프리카의 국영자원개발공사, 미국·유럽의 자원메이저, 미쓰비시상사 등 일본의 종합상사 외에 자동차부품에 희토류를 사용하는 토요타자동차와 혼다가 참여
- 내년 각료회의에서는 정부개발원조(ODA)를 사용한 인프라정비도 의제에 포함. 광산을 개발하더라도 일본에 수출하는 도로나 항만이 없으면 권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임.
  - 국제협력은행(JBIC)이나 국제협력기구(JICA)가 용자대상지역 등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논의. 환경배려형 기술지원이나 연구생 초청 등 전문 인력 육성에도 합의할 전망
- 아프리카의 자원개발은 중국이 선행. 일본정부에 의하면, 2008~2011년 투자누계액은 중국의 약 150억 달러에 비하여, 일본은 20억달러.
  - 그러나 현지에서는 중국기업에 의한 환경파괴나 노동자의 안전경시가 문제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. 일본기업의 진출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회의개최의 한 배경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은 전하고 있음.

### 3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토시바캐리어	2012.10.27	에어컨부품	태국/후지츠제너럴제조사회사	자본제휴/합작회사 설립, 총자본금 20억8,800만엔, 출자비율 51%
이토츄상사	2012.10.27	철도차량용기기	우크라이나/쿠류코프	수주/수주규모 약 42억엔
히타치제작소	2012.10.28	원자력발전	영국/호라이즌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액 600억~700억엔
토시바엘리베이터	2012.10.28	엘리베이터	인도	자본제휴/토시바의 현지법인증자, 증자규모 3억5천만엔, 출자비율 51%
JX일광일석개발, 스미토모상사	2012.10.30	가스전	영국	직접투자/가스전탐광광구의 권익취득, JX개발 권익의 45%-50%취득(오벨레터광구), 스미토모상사 100%취득(중부북해 광구)
미쯔이석유개발	2012.10.30	석유전	태국	직접투자/육상유전광구의 권익 100%취득
미츠칸	2012.10.31		영국/프리미아후즈	직접투자/피클스의 브랜드와 생산설비 취득, 취득가액 약 119억엔
미쯔비시중공업	2012.11.1	지하철공사	말레이시아	공사수주/수주규모 220억엔
KDDI	2012.11.1	데이터센터	러시아/데이터스페이스	제휴/데이터스페이스의 설비를 활용, 네트워크 구축
오릭스	2012.11.1	발전소 개발	한국/STX에너지	직접투자/주식의 43%보유, 출자규모 약 250억엔
카르피스	2012.11.2	사료	미국	직접투자/가축용사료첨가물제조공장 설립, 투자규모 약 15억엔
혼다	2012.11.2	자동차	미국	직접투자/엔진 등 생산라인의 일부 채신, 투자규모 약 160억엔
아케보노브레이크	2012.11.2	브레이크	프랑스	직접투자/연구개발거점 설립, 토지취득규모 2~3억엔

\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####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일본화현상 : 재정재건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10월27일

\*출처:[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kuma/pdf/k\\_1210d.pdf](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kuma/pdf/k_1210d.pdf)

(2) 『우려되는 대중관계 악화』 농림중금종합연구소, 10월30일

\*출처:<http://www.nochuri.co.jp/report/pdf/f1211ar2.pdf>

(3) 『대중 마찰의 경제적 영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』 일본종합연구소, 11월1일

\*출처: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researchfocus/pdf/6403.pdf>

(4) 『기업의 글로벌화와 설비투자』 정책투자은행, 11월2일

\*출처:[http://www.dbj.jp/ja/topics/report/2012/files/0000011360\\_file2.pdf](http://www.dbj.jp/ja/topics/report/2012/files/0000011360_file2.pdf)

(5) 『중소기업의 중국리스크』 오사카시신용금고, 11월2일

\*출처:<http://www.osaka-shishin.co.jp/houjin/keiei/pdf/2012/2012-10-29.pdf>